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전망

홍콩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에 의해 97년 12월 31일부로 수입이 중단된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재개에 대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업계에서 주장하는 6월중에 수입이 재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하여 농림부와 중국정부와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지난3월 중국정부는 우리정부에 가금인플루엔자 질병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입을 재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우리정부는 중국의 질병상황을 믿을 수 없으므로 우리정부가 믿을 수 있는 질병전반에 걸친 종합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중국정부는 지난5월 이에대한 자료를 보내왔으나 우리정부는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중국정부의 질병검사에 대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재요청했고 이달 10일까지 이 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농림부의 입장은 중국정부의 질병검사에 대한 자료가 도착하면 이를 검토한후 문제가 없는 경우 수입을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이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우리정부 관계자가 중국현지를 방문하여 질병상황을 확인하게 되며 중국을 방문한 관계자의 보고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입재개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중국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나서고 있다고 밝히면서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이 현재 오리업계에서 떠도는 것과 같이 6월중에 재개될 수는 없으나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에대한 오리업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육용오리 출하량 크게 늘어

6월들어 육용오리 출하량이 급상승하면서 오리사육농가들의 육용오리 출하일령이 중부권은 40일령, 호남지역은 37일령까지 늘어나고 있다.

당협회가 산란사료 생산량을 기초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6월 육용오리 출하량은 2백18만수로 전월 1백46만수 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2월부터 육용오리 출하량 감소가 이루어진 이후 5월 11% 증가한데이어 또다시 크게 증가된 수치이다.

이같은 6월의 육용오리 출하량은 지난1월의 출하량 2백만수보다 더 많은 출하량이고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서는 31%가 줄어든 양이다. 따라서 지난3월부터 육용오리 공급량 부족에 의해 야기된 오리고기 수급불균형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오리고기 수입량 감소와 전년도 생산량을 감안할 때 사육농가의 육용오리 출하일령이 다소 늦춰질 수 있어도 사육농가의 오리가 전년과 같이 극심하게 처지거나 현재의 가격이 크게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5월 육용오리, 새끼오리 생산비 분석

5월중 오리사육농가들의 육용오리 생산비는 4천3백원에 달하고 부화장들의 새끼오리 생산비는 6백36원 정도에 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오리사육농가들의 육용오리 생산비는 새끼오리 구입비용 1천2백원, 사료비용 2천2백원(출하일령 38일 기준 사료섭취량 6Kg 사료Kg당 가격 370원기준), 기타 부대비용(약품비, 연료비, 인건비등 사료비의 40%기준) 8백80원등 총 4천3백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비해 부화장들의 새끼오리 생산비는 종오리 총사육비용 6만4천1백21원에 새끼생산량 120수, 부화비용 수당1백원으로 나타나 새끼오리 수당 6백36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항목별로 분석하면 새끼종오리 구입비용 1만원(수입기준), 사료비용 3만8천6백58원(육성기 180일: 1일사료섭취량 130g, Kg당 사료가격 3백70원 기준, 산란기 10개월: 1일 사료섭취량 250g, Kg당 사료가격 4백원 기준), 부대비용(약품비, 인건비, 연료비등 사료비의 40%) 1만5천4백63원, 부화비용: 수당100원의 생산비를 기준으로 분석됐고 종오리의 생산성은 종란생산(산란율65%기준)195개, 새끼생산(부화율 65%기준)126수, 초란제외시 10개월간 새끼생산량 120수를 기준으로한 종오리 생산성을 기준으로 분석됐다.

옥용오리 생산비

항 목	비 용	기 준
새끼오리 구입비	1,200원	수당
사 료 비	2,200원	출하일령38일, 사료섭취량6Kg, 사료 Kg당 가격 370원
기타	880원	약품비,연료비,인건비등 사료비의 40%
합 계	4,300원	

새끼오리 생산비

항 목	비 용	기 준
새끼중오리구입비	10,000원	수입기준
사 료 비	38,658원	육성기180일: 1일130g, 사료 가격Kg당370원, 산란기10개월: 1일250g 사료 가격kg당 400원
부대비용	15,463원	인건비,연료비,약품비등 사료비의 40%
생산비 합계	64,121원	
중오리 생산성		종란생산(산란율65%) 195개 새끼생산(부화율65%) 126개 초란제외시 120개
새끼오리 생산비	634원	중오리 총사육비(중오리 총사육비 64,121원-새끼생산량 120+ 부화비용100원)

새끼오리 가격 폭등

최근 새끼오리 가격이 큰폭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12월 6-7백원선에 거래되던 새끼오리 가격이 배합사료 가격인상에 따라 1월부터 9백-1천원에 거래되었으나 지난 5월부터는 또다시 상승해 1천2백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최근 6월들어서는 공공연하게 1천3백-1천5백원까지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육농가들의 생산비 인상요인과 함께 국내산 오리고기 유통가격의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새끼오리 가격은 지난해 12월

이전에 비해 71-1백% 인상된 가격이고 지난4월에 비해서는 20-40%가 인상된 가격이다.

배합사료 가격 평균 2.7% 인하

배합사료 가격이 축협은 지난1일부터 일반사료업체들은 8일을 전후하여 소사료 3.3%, 돼지2.8%,기타가축사료 2.7% 전후해서 인하됐다.

특히 오리사료의 경우 사료업체별로 부분적인 차이가 있으나 평균 2.5-2.7%선에서 가격이 인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써 오리사료의 Kg당 가격은 육용오리가 종전 370원에서 10원 정도가 내린 360원선이 되는 것으로 보여 사료1포당 9천원선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리배합사료 가격이 이와같이 인하된 가운데 최근 오리 사육농가들의 육용오리 출하일령이 늦어지고 있어 배합사료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오리 사육농가들의 사료비는 종전5월에 비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육용오리 출하량 크게 증가

6월들어 육용오리 출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협회가 지난5월 배합사료 생산량 통계를 기준으로 한 6월의 육용오리 출하량은 2백18만수로 집계됐다. 이같은 6월의 육용오리 출하예상량은 전월 예상량 1백46만수에 비해 무려 49%가 증가 출하량이다.

이와같이 6월들어 육용오리 출하량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것은 지난3월들어 종오리 사육량이 크게 늘어난데다 봄철들어 부화장들의 산란율, 부화율 향상에 따른 새끼오리 생산량이 크게 증가됐고 오리사육농가들의 사육여건 역시 겨울철에 비해 크게 좋아져 육용오리 출하율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